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023년 한 해를 시작하며 주님의 손에 모든 것을 맡기고, 순종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늘 주님께서 동행하여 주시고, 지혜와 명철을 주셔서 맡겨 주신 일들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한 해가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합니다. 아멘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네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법도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네 길을 지도하시리라  
잠언 3장 5-6절

사시: 바른신학 바른교회 바른생활 바른선교

www.chpress.net

주후 2023년 1월 21일 (토) 제 1906 호

□ L.A. : 611 S. Catalina St. #305 Los Angeles, CA 90005 Tel. 323-665-0009, 213-674-7982 Email: lachpress@gmail.com □ N.Y. : 143-17 Franklin Ave. 5Fl. Flushing, NY 11355 Tel. 718-886-4400 Email: nychpress@gmail.com

# 크리스천답게 정치하라!

### 처치리더스컴, 제임스 에머리 화이트 목사가 말해주는 정치적 크리스천의 의미/행동 소개

정치는 매우 중요하다. 심지어 당신이 그리스도인이자라면 정치 활동 참여는 필수적인 것이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정치적인 활동을 해야 하는 이유는 '문화'의 중요성 때문이다. 이는 더 나아가 세계적으로도 중요한 문제이다. 우리는 세계 시민에 속하는 사람들이다. 그리고 성경은 시민으로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계 속에서 정치 참여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말한다.

제임스 에머리 화이트 (James Emery White, 고든 코넬 신학교에서 4번째 총장으로 섬겼으며, 신학과 문화 교수로 재직 중) 목사는 진보와 보수라는 양극단으로 갈라진 미국 사회에서 크리스천의 정치 참여는 성경적으로 온전할 때, 세상과는 결이 다른 진리로 나아갈 수 있다고 말한다 (On Being a Political Christian).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산상 수훈에서 '빛과 소금'이라는 비유를 통해,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인의 정치 참여의 필요성을 언급하셨다(마 5:13-16). 빛과 소금은 여러 중요한 의미의 비유이다. 예수님이 살던 당시, 소금은 인간이 가질 수 있는 것들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으로 여겨졌다. 소금이 없으면 음식의 맛과 향을 구현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소금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음식이 썩지 않도록 보존해주는 일이다. 만약 우리가 생선이나 고기를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그것을 바로 먹기 보다는 그 전에 거기에 소금을 칠 것이다. 소금은 고기가 썩지 않도록 방지해주는 역할을 한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인생을 살아가는데 있어서도 이와 같이 소금과 같은 역할로서 존재해야 하며, 소금과 같이 행동해야 한다고 말씀하셨다.



또한 예수님께서 우리를 세상의 빛으로 부르셨다. 우리가 빛으로 존재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삶에 역사하신다는 것을 뜻하며, 동시에 예수님이 모든 사람들에게 전하고자 하시는 진리를 우리 통해 깨닫게 하시는 것이다. 빛은 곧 그리스도의 메시지이다. 그렇기에 당신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 : 소금은 무엇

에 대해 대항하고 막아내는 부정적 이미지의 의미를 가지며, 동시에 빛은 무엇인가를 이루어지게 하도록 만드는 긍정적인 이미지의 의미를 갖는다. 즉, 우리는 소금으로써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도덕적, 문화적 침식에 저항할 수 있어야 한다. 즉, 우리는 이 땅에 진리가 선포되고 이루어질 수 있게 만들어야 한다. 이것은 우리가 문화에 대해 수동적인 관찰자로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에 대해 '존 스토틀(John Stott)'는 "고기를 소금에 절이지 않고서 고기가 상했다며 비난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 이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비난이다. 진짜 우리가 가져야 할

질문은 '소금은 어디에 있는가?'이다"라고 말했다. 존 스토틀의 이러한 질문은 명백하게 그리스도인의 정치 참여와 관련이 있다. 나는 종종 '그리스도인들이 정치참여나 선거 투표에 참여하고 신경 써야 하는가?'에 대한 질문을 받는다. 아마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말할 것이다. "음, 어떤 것을 우리의 힘으로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하나님께서 하시게 그냥 뒤야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접근은 수동적인 시민 활동이자, 치명적인 결점인 운명론적인 생각에 지나지 않는다. 더구나 그리스도인들의 이러한 말에는 어떠한 성경적인 근거도 없다. 이처럼 대체로 그리스도인들은 무의식적으로 정치적인 일에 개입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편이다.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 내가 아는 한에 있어 명확하게 말하자면, 그리스도인들은 임법과 관련된 일들, 그리고 투표 활동에 정치적인 사명을 추구하는 것을 외면하지 말아야 한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정치적인 것에 개입하지 말아야 한다는 우리의 생각은, 이 세상에 대해 빛과 소금의 사명을 포기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지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정치적인 시민'이 될 수 있을까? (2면으로 계속)



## '어메이징 그레이스'는 영혼 훈련의 찬양이다!

### TGC, 작곡 250주년 맞아 우리가 잘 모르는 8가지 사실 소개

"극심한 불행이 닥쳤을 때 사람들이 찾는 노래가 바로 이것이다. 희망을 잃어버렸을 때, 우리는 '어메이징 그레이스'를 부른다"

1773년 1월 1일, 250년 전 새해 첫날, 잉글랜드 소음 올니(Olney)의 한 교회에서 최초로 "어메이징 그레이스"가 불렀다.

곧장 널리 알려지지는 않았지만, 점차 이 찬송은 아메리카에서 교파를 넘어 모든 교회로 널리 퍼져나갔다. 이 찬송은 서부 개척자들에게는 부흥 성가, 흑인 교회에서는 아프리카계 미국인의 영가, 그리고 20세기에는 찬송가의 표준이 되었다. 그다음에는 1947년에는 머헤리어 잭슨(Mahalia Jackson)이, 그리고 1970년에는 주디 콜린스(Judy Collins)가 음반으로 내는 등 라디오 시대와 함께 음반 시장으로 확대되었다.

그 이래로 이 찬송은 세계에서 가장 인기 있고 인지도 높은 찬송이 되었다. 그리고 이 찬송은 널리 퍼져나가지만 한 것이 아니라, 깊숙이 파고 들기도 했다. 극심한 불행이 닥쳤을 때 사람들이 찾는 노래가 바로 이것이다. 희망을 잃어버렸을 때, 우리는 "어메이징 그레이스"를 부른다.

그렇지만, 다들 익숙한 노래임에도 불구하고 "어메이징 그레이스"에 대해서 우리가 잘 모르는 것이 적지 않다(250 Years Ago Today: John Newton's 'Amazing Grace' First Sung: 8 Things You Probably Didn't Know About the Evangelical Hymn).

(3면으로 계속)



시론 3면  
민경엽 목사



푸른초장 4면  
신동기 목사



교회사회의 신순환 13면  
조용중 선교사

**월드미션대학교**  
신학/상담학/음악학/예배학/간호학/사회복지학  
**캠퍼스온라인**  
www.wmu.edu | 500 Shatto Pl., Los Angeles | (213)388-1000

**가독교서적센터**  
The Christian Book Center  
성화, 성구약자, 크리스탈강대상, 성가대·목사까운  
(323) 737-7699  
인터넷 쇼핑몰: www.lachristianbookcenter.com  
E-mail: cbc0191@hotmail.com  
1027 S. Western Ave., #2 L.A., CA 90006

**Sharing Bread for Soul (SBS)**  
월드쉐어USA  
생명의 빵 나누기 운동 본부  
말씀과 빵을 나누며 영혼을 살립니다  
문의 강태광 목사 (323)578-7933

www.laguesthouse.com  
**LA 호텔식 하숙**  
GUEST HOUSE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 (김스전기양)  
TEL. 213-663-9181  
965 Fedora St. L.A., CA 90006  
Email: laguesthouse@live.com

2023 HAPPY NEW YEAR  
**신년축복성회**  
Uniting with the **NEXT GENERATION** unto the ends of the earth  
다음세대와 연합하여 땅끝까지  
2023. 1. 26(목)~29(주일)  
목(7:30pm), 금(5:30am, 7:30pm)  
토요일(6:00am, 7:30pm), 주일(1부~4부)  
장소: 은혜한인교회 비전센터(본당)  
강사: 조지훈 목사(조이플교회 담임)  
조지훈 목사  
은혜한인교회 150 S. Brookhurst Rd. Fullerton, CA 92833 TEL : 714.446.1000 www.gracemi.com

발행인 칼럼
담대한 신앙



김성국 목사
(퀸즈장로교회 담임)

'목사님, 제가 교회에 기도 부탁드리는 것은 제가 질병에서 나고자 하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저의 고난이 다른 고난을 받는 자들에게 도움이 되길 기도 부탁드리는 것입니다.'

어려움을 당한 자들을 찾아보고 늘 살핀다. 교회에서 교사로서도 열심히 섬긴다. 그런 자매가 지난 12월에 자궁암이 재발 되었다는 소식을 의사로부터 듣게 되었고 얼마 전 부모와 우리 부부에게 알려준 것이다.

또 다른 자매의 담대한 신앙 이야기이다. 얼굴에 살짝 수심(愁心)이 있는 것 같았다. 그래도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출중한 실력으로 정성을 다해 새벽예배 반주를 잘 섬기니까 그 자매에게 큰 고마운 마음을 가지고 지나고 했다.

로마서 16장에는 수십 명의 이름이 등장한다. 모두가 바울의 아름다운 동역자들이다. 맨 처음에 등장하는 인물이 누구인가?

팬데믹 부수 효과, 최고 갑부들만 누렸다!

WIL, '2022년 세계 불평등 보고서 통해, 점점 심화되고 있는 소득 불균형 현실 고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세계 최고 갑부들이 소유한 부는 급증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The World Inequality Report 2022 presents the most up-to-date &

complete data on inequality worldwide: global wealth ecological inequality income).

프랑스 파리에 위치한 세계 불평등연구소(World Inequality Lab)는 지난 7일, 소득, 부, 성별, 환경 등의 분야에서 사회 경제적 불균형을 연구한 세계 불평등 보고서를 발간했다.

이에 따르면 2020년 억만장자들의 재산이 역사상 가장 가파르게 증가했다.

반면 약 1억 명의 사람들은 극심한 빈곤에 빠졌다.

현재 상위 소득 10%는 전 세계 소득의 52%를 차지하고 있지만, 하위 50%는 8%에 불과하다.

1995년 이후 억만장자의 재산은 1%에서 3%로 증가했다.

보고서는 "코로나 팬데믹 기간 증가세는 더욱 심해졌다. 2020년은 세계 억만장자들의 재산 점유율이 역사상 가장 가파르게 증가한 해"였다고 밝혔다.

세계 상위 1%는 1995년 이후 축적된 부의 3분의 1 이상을 가져간 반면, 하위 50%에

게는 2%만 주어졌다.

루카스 쉐슬 WIL 공동 소장은 AFP 통신에 "코로나19가 18개월 이상 이어지면서, 세계는 더욱 양극화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한 "억만장자들의 부는 3조6000억 유로 이상 증가했지만, 1억 명은 극빈층 대열에 합류했다"고 했다.

극빈층이 지난 25년 동안 감소해왔던 것과 대조적인 결과다.

보고서는 다음과 같이 결론 내렸다.

연구원들은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52명의 경우, 지난 25년 동안 매년 9.2%씩 부의 가치가 증가했다는 부분도 주목했다. 이는 다른 집단을 훨씬 웃도는 수치다.

전 세계 노동 소득에서 여성이 차지하는 비중은 35% 미만이었다. 1990년 약 30%였던 수치에 비하면 높아졌지만 여전히 남성보다 낮았다.



부자세

유럽은 세계에서 가장 소득 분배가 가장 평등한 지역으로 나타났다.

상위 10%가 소득의 36%를 차지했다. 중동과 북아프리카가 가장 불평등했는데, 상위 10%가 소득의 58%를 차지하고 있었다.

팬데믹 기간, 빈곤에 늘어 빠지는 사람들을 줄이기 위해 부유한 국가들의 개입은 필수적이었다.

보고서는 가난한 나라들이 소득을 부양하고 일자리를 구할 재원이 없다고 지적했다.

그 불균형을 바로잡기 위해, 경제학자들은 부를 재분배할 "전 세계 백만장자를 대상으로 누진적 부유세를 주장하고 있다. 또한 탈세에 대해 더 강력한 조치도 요구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WIL 보고서는 "막대한 부의 집중을 고려할 때 적당한 누진세는 정부에 상당한 수입을 가져올 수 있다"고 평가했다.

크리스천에게 정해라

(1면에서 계속)

여기에는 우리가 마음에 새겨야 할 3가지 혁신적인 것들이 있다. (다음에 올 내용은 미국의 상황을 고려하며 쓴 것이다. 각 나라의 상황과 문화에 따라 충분히 바뀔 수 있는 것들이다.)

1. 정치 문제에 있어서 우리는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여야 한다.

만약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면, 우리는 대부분 공화당(Republican)에도, 민주당(Democratic)에도 속하지 않는다. 우리가 공화당이건 민주당이건 이것은 본질적인 문제가 안 된다. 우리는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존재해야

하고, 공화당원 혹은 민주당원이 되는 것은 그다음 이야기일 뿐이다. 여러분들 중에 일부는 정치적으로 진보도 보수도 아닌 중도라는 것에 안도감을 느낄 수도 있을 것이다. 이에 대해서, 아마도 우리는 신학적으로는 보수적이지만 사회적 감수성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다. 아마도 우리는 진보주의적인 것에는 매우 보수적으로 느낄 수도 있지만, 매우 진보적인 것에는 반대로 보수적이라고 느낄 수도 있을 것이다. 아마도 우리는 생명의 신비함에 대해 관심을 가지면서도 동시에 지구 온난화에 대해서도 걱정하고 있을 수도 있을 것이다. 이러한 생각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부터 분리되는 느낌을 받을 수 있다. 사실상 우리는 분리될 수 있는 것이다.

우리의 순종은 예수님을 향한 것이지만, 어떤 당이나 이념을 향해서 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의 진정한 시민권은 국가에 있는 것이 아닐뿐더러, 정치적 당파에 있는 것은 더더욱 아니다. 우리의 진정한 시민권은 하나님 나라에 있다. 그리고 예수의 제자로서, 우리는 어떤 문제들에 대해서는 이쪽 진영이 더 옳다는 것을 느낄 것이고, 다른 문제에 있어서는 또 반대쪽 진영이 더 낫다는 합리적인 판단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완전히 다른 논지의 이슈에 대해서는, 두 진영이 틀린 관점을 가지고 있다는 것도 알 것이다.

정치적으로 옳고 그름에서 더 나아가, 성경적 가치관을 고수하고 있는지를 중요하게 생각해야 한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어떤 한 정당을 따를 수도 있지만, 그리스도의 제자로서는 절대 그 정당의 의견에 대해 무조건적으로 복종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우리는 항상 정당들을 넘어서 존재해야 하며, 거기가 어디든 간에 예수님이 이끄시는 곳에 머물러 있어야 한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명확히 보길 원하고, 들길 원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절대로 우리의 눈을 가리거나 귀를 막으면 안 된다. 왜냐하면, 그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정치적인 입장에(political party) 반대하는 행동이기 때문이다.

"마틴 루터 킹" 목사는 "우리는 어떤 주(또는 국가)에 주인이거나 하인이 아닌, '양심'이다"라고 말한 바 있다.

2. 우리는 '두 가지의 악들(Evils)' 중에 그나마 덜 악한 것에 투표하는 것뿐이다.

어떤 정책이 정치적으로 명확히 구분되지 않거나, 어떤 후보의 정책이나 성향에 대해서 매력적이지 못할 때,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투표를 하는 게 좋을까? 종종 사람들은 "악한 것들 중에 그나마 덜 악한 것에" 투표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실제로 최근 선거를 보면 대다수의 미국인들이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참여했다. 이렇게 생각하는 데는 한 가지 이유가 있다. (3면으로 계속)

미주크리스천신문 The Korean Christian Press
발행인 겸 편집인: 김성국
L.A. Office: 611 S. Catalina St. #305 Los Angeles, CA 90005
N.Y. Office: 143-17 Franklin Ave. 5th Fl. Flushing, NY 11355

교회인쇄물·헌금봉투·배너
Order Online 30% LOW PRICE
in2printing.com
인투인쇄 T. 718-425-8505

2023 제9차 오렌지카운티 기관 및 단체장 초청 조찬기도회 Prayer Breakfast
초대의 말씀
2023년 새해를 맞으면서 오렌지카운티 지역 모든 기관 및 단체장님들을 모시고 기관 소개와 함께 연합 기도 시간을 갖고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부디 오셔서 지역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의미있는 기도회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단체장 초청 조찬기도회의 후원에 동참을 원하시면 아래 문의처로 알려주십시오.
문의: OC교협 심상은목사 (714)722-4805
온라인 등록: 구글 다크 링크
https://docs.google.com/forms/d/1YrXuh94rB\_JzwsYt-vKhyEUJ4uNXIORG1qUBN4huEug/edit
2023
OC기독교교회협의회 THE KOREAN CHURCH COUNCIL OF ORANGE COUNTY
오렌지카운티장로협의회 THE CHRISTIAN ELDER'S ASSOCIATION OF ORANGE COUNTY
오렌지카운티 목사회
오렌지카운티한인여성목사회
오렌지카운티기독교전도회연합회

















목회서신



박성규 목사 (주님세운교회)

무엇보다 중요한 것

제임스 짐 스톡데일이라고 하는 사람은 월남전쟁 당시 미 해군 준장으로 지휘하다가 그만 베테공에게 포로로 잡혀 수용소에서 무려 8년간 모진 고통을 당했으나 살아서 조국의 품으로 돌아온 사람입니다. 그래서 한때 유명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기자들이 그에게 물어보았습니다. "How Survival? 그 어려운 고통 속에서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었습니까?" 그는 대답했습니다. 처음 고문당할 때 사를 밤낮으로 운동장 한가운데 세워 두는데 손을 뒤로 묶어서 무릎을 꿇게 하고 밭도 주지 않고 잠도 자지 못하게 했습니다. 조금만 눈을 감으면 감시자가 모진 구타를 했습니다. 온몸이 피투성이가 된 채 3일 밤낮 그렇게 운동장 한가운

데 꿇어 엎드려 있었습니다. 차라리 죽는 것이 낫다고 생각했지만 어떻게 죽을 수도 없는 참담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점심시간이 되자 다른 미군 포로들이 자기 옆을 줄지어 지나가면서 암호를 했습니다. 암호는 툭툭 투두둑이었습니다. 발소리를 내는 것이었습니다. 툭툭 투두둑 "May God bless you, May God bless you"

스톡데일 준장은 그 소리를 듣는 순간 용기를 얻게 되었습니다. 때로는 감방에 홀로 갇혀 절망 속에 있을 때 옆방에서 벽을 두드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툭툭 투두둑 빗자루로 마당

을 쓸면서도 빗자루를 가지고 툭툭 투두둑 서로 만나면 잠시 스치는 순간에도 눈으로 서로 링크하며 엄지손가락을 곁에 세우고 "당신은 훌륭합니다. 당신은 이길 수 있습니다." 하는 뜻을 말없이 신호로 보내주더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이란 누군가와 통하고 있다는 느낌만 있으면 하나님은 당신을 축복합니다." 하는 축복기도의 Sign입니다. "May God bless you" 그리듬으로 툭툭 투두둑 이렇게 발소리를 내며 지나갔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 닥친다 해도 "May God bless you" 하며 축복하는 Sign을 보내는 아름다

운 이웃이 되십시오. 엄지손가락을 곁에 세우고, "당신은 훌륭합니다. 당신은 이길 수 있습니다."라고 말하며 용기를 주는 이웃이 되십시오. 그러면 모든 고난을 이겨낼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아무리 고독한 순간에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늘로부터 신호가 옵니다. "May God bless you" 하나님과 통할 수 있는 자는 어떤 절망도 극복할 수 있는 새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사방으로 에워싸이는 절박한 환경에 놓인다 해도 누군가 통하고 있다면 반드시 일어나 승리하는 삶을 얻게 될 것입니다.

songkpk@hotmail.com

인/터/뷰

월드미션대 초고령시대 시니어복지목회 포럼 강사 이준우 교수

'노인사역'...교회가 앞장서서 펼쳐나가야 하고 노인에 대한 패러다임이 전환 되어 할 때

"수발이라는 개념이 아닌 사회적 돌봄, 정서적 돌봄, 신체적 돌봄이 유기적으로 작동해야 하고 예전처럼 노인들이 케어만 받으며 생활하는 것이 아닌 다음세대와 문화적 공유를 하며 공감대를 형성해 나갈 수 있는 시대 되어"

동목사로 섬기고 있는 이준우 교수는 "장애에 대한 인식이 변화하고 있다"며 "과거에는 장애를 마치 불치병처럼 생각을 해왔지만 현재는 장애를 현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별히 과학기술의 발달로 인해 지체장애는 사회 생활하는데 지장이 없을 정도가 되었습니다. 하반신을 사용하지 못하는 장애인들 경우 하반신에 신경이 살아있다면 웨어러블 기계를 사용하여 생활할 수 있느냐고요"라고 설명한다.

이 교수는 자폐스펙트럼 장애에 같은 정신적인 케이스를 제외하고는 과학발전이 상당부분 어려움이 해결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하지만 사회가 노령화로 인해 노령 층에서 장애가 발생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생기거나 인지영역 등에서 장애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노인사역에 대하여 교회가 앞장서서 사역을 펼쳐나가야 하는데 노인에 대한 패러다임이 전환되어야 합니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한국교회에



이현아 교수와 이준우 교수

서 실시하고 있는 노인사역이 주로 어르신들을 케어하는 쪽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성육신적 관점에서 어르신들의 문화를 이해하고 그분들의 삶이 활기찬 노년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돕는 쪽으로 전환이 되어야 합니다. 즉 수발이라는 개념이 아닌 사회적 돌봄, 정서적 돌봄, 신체적 돌봄이 유기적으로 작동해야 합니다. 우리가 사는 사회가 초

고령시대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예전처럼 노인들이 케어만 받으며 생활하는 것이 아닌 다음세대와 문화적 공유를 하며 공감대를 형성해 나갈 수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노인사역에 대해 제 개념을 화해하며 이를 통해 건강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라고 피력했다.

18일(수) 오후3시 유튜브와

Zoom으로 진행된 초고령시대 대비 시니어 복지목회포럼은 '초고령 사회를 준비하는 사회복지와 미래목회의 방향 모색'이라는 주제로 열렸다. 이준우 교수는 '성육신적 시니어 복지목회의 방향과 실제'라는 제목으로 주제 발표했으며 이상진 목사는 '치매 친화적 신앙공동체'라는 제목으로 주제 발표했다.

본교 사회복지학과 교수가

자 글로벌리더십 석사 복지선교 전공 디렉터 이현아 교수는 노령인구에 대한 관심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게 다가오는 시대가 되었다며 월드미션대학교가 초고령시대에 대비한 리소스를 많이 개발하여 커뮤니티에 제공하고자 한다고 하며 한국에서 사회복지계열로 앞서가고 있는 강남대학교와 함께 다양한 사회복지 사역에 대한 강의를 개설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준우 교수는 "이미 월드미션대학교와 강남대학교가 사회복지에 대한 동일한 인식을 갖고 있다"며 "사회복지의 이론과 실제경험이 많은 강남대학교와 신학과 선교분야에 탁월한 월드미션대학교가 함께 한다면 하나님께서 기쁘게 생각하시는 사역과 사역자들이 많이 배출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하며 "이번 포럼을 통해 미주사회 교회들 사회복지 기관들에 전문가들 인식이 확장되고 변화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또한 복지선교전공을 많이 해서 이 과정 통해 발돋움하는 시발점이 되었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이현아 교수는 "포럼을 계기로 지역 사회와 함께 협력하는 학교로 되었으면 한다. 노인분들의 양적 수가 급증하는데 교회와 기관에서 대처가 빨리 이루어졌으면 한다"고 말했다.

(박준호 기자)

Worldwide church directory with title '세계로 뻗어가는 교회 동부(NY,NJ)교회' and '하와이 및 북미 지역'. Includes contact info for various churches like 뉴욕목양장로교회, 뉴욕북크리켓교회, 뉴욕새사람교회, etc.





아시아·아프리카·남미 교회 성장, '세계 선교' 지형 바뀐다

한국세계선교협의회, 17일 정기총회 개최

아시아·아프리카·남미 교회가 성장하면서 서구 중심의 선교 시대가 저물고 있다. 북반구에서 남반구로 세계 선교 지형이 바뀌면서 한국 선교계도 새로운 선교 전략이 모색되고 있다.

한국세계선교협의회(KWMA)는 17일 서울 서초구 사랑의교회에서 33차 정기총회를 열고 오는 6월 13일부터 나흘간 강원도 평창 알펜시아 컨벤션센터에서 '2023년 제8차 세계선교전략회의(NCOWE·엔코위)'를 열 예정이다.

4년마다 열리는 엔코위는 한국 선교계가 지향하는 선교 방향성을 점검하는 회의다. 2017년 7차 회의 이후 코로나로 5년 만에 열리게 됐다. 주최측은

선교사와 선교단체 관계자, 선교학자, 목회자 등 600여명을 초청할 예정이다.

강대홍 KWMA 사무총장은 "선교사들이 해외선교지에 들어가 교회를 세우고 자원을 들여 선교하는, 이른바 서구 중심의 선교는 이제 막을 내렸다"며 "현지인들이 스스로 선교하도록 지원하는 새로운 전략이 필요하다"고 엔코위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 등 비서구권 나라들이 연합해 선교하는 운동으로 발전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엔코위는 '세계 기독교 시대의 한국선교에 대한 이해와 나아갈 길'이라는 방향 아래 '선교와 거룩' '한국선교와 세계 기독교' 등 네 가지 주제를 다

룬다. 참석자들은 '다음세대 선교 동원' '정보화 시대와 선교' '현직교회와의 협력' '여성선교사' '가정' 등 9가지 주제의 영역별 모임에서 세부 실천 과제를 평가하며 대안을 모색한다. 한철호 엔코위 프로그램위원장은 "우리나라가 정보통신(IT) 강국임에도 4차 산업시대 선교를 위한 조사와 아카이브(자료보관소) 시스템이 별로 없다"며 정보화 시대의 선교를 강조했다.

정기총회에 앞서 KWMA 이사장 이규현 수령로교회 목사는 인사말을 통해 "한국교회가 선교 분야에서 급격한 변화를 겪고 있다"며 "교회 역사를 보면 언제나 위기의 때에 하나님이 새로운 길을 여신다. KWMA가 새해를 맞아 사막에 길을 내는 하나님을 경험하며 비상하길 바란다"고 격려했다.



기독교 최초 OTT플랫폼 서비스 'CTS JOYGO(조이고)' 오픈

총 8만여편 이상 국내 목회자의 설교 보유, 기독교 콘텐츠 제공

CTS기독교TV(회장 감경철)는 지난 1일부터 뉴스 미디어를 통한 복음 전파를 위해 종교 미디어로는 최초로 기독교 OTT 플랫폼 서비스 'CTS JOYGO'를 오픈했다.

'CTS JOYGO'는 CTS기독교TV에서 27년 동안 방영된 약 30만편의 설교, 프로그램, 뉴스 등의 콘텐츠를 서비스한다.



전도 힘들다는데... 상가교회 217명 열매 비결은  
예성 '성결인의 전도대회' 서 1등

지난 성탄절, 경기도 성남 빛나는교회(서학복 목사)는 '빛나는 축제'를 열었다. 성도들로 구성된 30여팀이 찬양 율동 연극 등 다양한 공연을 펼쳤다. 이날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함께 기뻐하는 자리기도 했지만 전도의 열매를 맺는 자리이기도 했다. 빛나는교회 성도들이 전도한 새신자들이 함께 무대에 섰기 때문이다. 공연에 참여한 새 신자와 그를 보러온

가족까지 교회는 시골벽적했다. 빛나는교회 성도들이 지난해 10월부터 12월까지 전도한 숫자는 무려 217명이다. 대략 매일 2명 이상 복음의 열매를 맺은 셈이다. 빛나는교회는 예수교대한성결교회(예성·총회장 신현과 목사)가 16일 서울 종로구 총회회관에서 개최한 '성결인의 전도대회 시상식'에서 1등을 차지했다. 예성은 지난해 10월부

터 3개월간 '성결인의 전도대회'를 열고 산하 교회에 전도사역을 독려했다.

빛나는교회는 상가교회지만 대형교회 이상으로 모든 열정을 전도에 쏟아붓고 있다. 통상 교회가 1년에 한 차례 하기도 힘든 전도대회를 세 차례씩 진행한 지 10년이 넘었다. 서학복목사는 "성도들은 1차 때 전도에 실패하더라도 낙심하지 않는다. 2차, 3차,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고 복음을 전한다"며 "모든 새신자가 우리 교회에 등록하지 않더라도 한 번이라도 복음을 듣고 교회에 나왔다는 게 중요하다"며 의미를 부여했다.

목회자들은 성도들이 전도대상자를 교회까지 데려오도록 지속해서 코칭하는데, 이때 강조하는 것이 전도 대상자를 향한 관심이다. 서 목사는 "성도들에게 전도 대상자의 특징과 성격, 환경 등을 잘 관찰하고 그들에게 꼭 필요한 말과 도움을 주라고 조언하고 있다"며 "전도가 어려운 시대이긴 하지만 의지가 있다면 모든 교회가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소외된 아이들의 건강한 정서 발달, '일곱 빛깔' 선율의 기적

기아대책-GS리테일 문화소외계층 돕는 '무지개상자' 성과 발표

국제구호개발 NGO 희망친구 기아대책(회장 유원식)은 서울 강남구 GS 강남타워 세미 나홀에서 아동문화정서 지원사업 '무지개상자' 성과발표회를 실시했다고 17일 밝혔다.

"근대가 이렇게 우리 곁으로 왔네요."

현직 역사교사 15명과 기독교 문화유산 탐방

한국교회총연합(한교총·대표회장 이영훈 목사)이 16일부터 사흘 일정으로 전국 각지의 중·고등학교 현직 역사교사 15명과 함께 기독교 문화유산 탐방에 나섰다.

'우리에게 근대 문화는 어떻게 왔을까'를 주제로 진행되는 문화유산 탐방은 서울 새문안교회에서 출발해 정동교회와 경기도 화성 제암리 3·1운동 순국유적지, 전주 기독교 근대역사박물관, 광주 양림동 선교사 묘원, 대구 근대문화 유적지 청라언덕 등을 답사한다.

새문안교회에서 이들 교사를 만난 이영훈 대표회장은 "우리나라 근대 역사는 기독교 역사라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

로 교육과 의료 등 사회 전반에 영향을 미쳤다"면서 "교회가 교권·물질주의 속에서 지도력을 잃고 비판을 받고 있는데 기독교 문화유산 탐방을 통해 교회의 과거를 돌아보고 이를 기반으로 재부흥의 길을 찾으려 한다"고 행사 취지를 설명했다.

답사에 참여한 홍상의 과천문원중학교 교사는 "역사 교사로서 일제강점기를 지나 우리 사회가 민주화와 산업화를 이루는데 기독교가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걸 알고 있었고 이번 답사로 그 현장을 보게 됐다"면서 "우리나라 선교 역사가 더 많이 알려지길 바란다"고 전했다.

'JOYGO'는 총 8만여편 이상 국내 목회자의 설교를 보유하고 있다. 성경별 검색은 물론 절기, 주제, 인물 등의 설교를 정확하고 빠르게 찾을 수 있는 검색 기능을 갖췄다.

또한 '제자 육한흠' 프리미엄 다큐와 국내의 기독교 명작 영화, 웹 드라마 등 유익한 기독교 콘텐츠로 이용자들에게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는 한편 매주 다양한 테마를 구성해 이용자들에게 맞춤 콘텐츠를 추천한다.

'JOYGO' 콘텐츠 담당자는 "비대면이 일상이 된 지금 CTS 기독교TV에서 제작하고 엄선해 제공하는 JOYGO의 콘텐츠가 미디어 선교와 복음 전파, 신앙 성장의 좋은 도구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무지개상자 프로젝트는 기아대책이 2005년부터 GS리테일의 후원을 받아 지역아동센터 아동을 대상으로 진행하고 있는 문화소외계층 지원 사업이다. 경제적 어려움으로 문화활동에 취약한 아이들에게 음악을 활용한 정서적 공감대 형성과 문화예술 분야의 재능을 발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18년 동안 711개소 1만2527명의 아동이 참여했다. 현재는 전국 23개소 250여 명을 대상으로 사업을 진행 중이다.

이날 열린 성과발표회는 '무지개상자' 사업을 전문가들과 함께 평가하고 사업 전개 이후 측정된 사회적 임팩트를 공유하는 취지로 마련됐다. 발표는 사업 효과성 연구를 담당하는 이화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조상미 교수 연구팀이 진행했다.

연구팀은 "무지개상자" 사업이 지역아동센터 아동들의 자 기효능감, 학교생활 적응력, 자아회복탄력성 증진과 함께 건강한 성장에 긍정적으로 작용했음을 확인했다"며 "특히 코로나19로 오프라인 모임이 제한된 상황에서도 온라인 음악 교육을 제공하며 교육 및 문화 격차를 줄여줌으로써 대상자들의 만족도가 높았다"고 평가했다.

발표 이후엔 코로나19 이후 3년 만에 '무지개상자 오케스트라'의 대면 연주회도 진행됐다. 현장엔 지역아동센터 관계자 및 GS리테일 임직원 등 70여 명이 참석해 무대를 함께 관람했다.

## Ministry Management Leadership

### 목회 경영 리더십 대학원

2023년 봄 학기 - 개강 2023년 2월 6일

**모집과정**  
**MBA - Ministry Management Leadership**  
**Doctor of Leadership : Ministry/ Mission Leadership**  
**Ph.D. in Organizational Ministry Leadership**

**학점, 학위취득방법 Study Options**

1. 미국 유학을 희망하는 학생은 F1 Visa (SEVIS-20) 또는 J1 Visa (DS-2019)
2. 직장과 사역을 떠나지 않고 세계 어디서든지 Online 혹은 집중강의로 학점취득 가능
3. 영어, 한국어 언어에 구애없이 학점취득 가능

## Midwest University

851 Parr Rd. Wentzville, MO 63385  
 (636) 327-4645. usa@midwest.edu  
[www.midwest.edu](http://www.midwest.edu)









# 세계 어느 곳에서든지 공부한다



## 영성과 상담코칭 박사과정 신설

### 학위과정별 전공

- 준학사과정 | 기독교사역학, 기독교상담학
- 학사과정 | 기독교사역학(찬양과 예배 전공), 기독교상담학, 사회복지학, 간호학(RN to BSN)
- 석사과정 | 목회학, 신학, 상담심리학, 음악학, 찬양과 예배, 글로벌리더십(복지선교, 코칭 전공)
- 박사과정 | 목회학(DMin), 음악학(DMA), 상담코칭과 영성형성(DMin), 영성과 상담코칭(PhD)
- 수료과정 | 유아교육, 가정상담, 비영리단체 사역



홈페이지 QR

World Mission University 월드미션대학교

500 Shatto Place, Los Angeles, CA 90020 | wmuinfo@wmu.edu | www.wmu.edu